

# 2018 학년도 제 1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년 1월 5일(금) 14:00~15: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염영섭 (학교법인 상임이사)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김평강 (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김현정 (주간MBA 원우회장)
- 배    석 : 이도행 (법인사무처 법무감사팀 계장)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김종혁 (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김남진 (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배석한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하고, 등록금 상한선 (1.8%)을 확인하고, 등록금 책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물가인상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교육비 수준 등)을 확인함
- 2017 학년도 가결산 및 2018 학년도 예산 편성안을 중심으로 등록금 심의 보고 자료를 설명함
- 2018학년도 재정 전망 및 리스크 요인 설명함

##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현재 차입금이 얼마 남았는지.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리찌과학관 차입금 상환 완료되고 데이아르관, 정하상관 19억 정도 남음.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학부 단위 교육 부분 추가 예산 배정은 없는지 궁금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DB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대응방침이 어떠한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유지하고, 각 학부에 일반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예산을 2억정도 증액함. 특히 국가장학금2유형을 수혜받기 위해 장학금 규모는 유지함. 학술DB 예산도 금액 없이 전년도 보다 소폭 인상할 계획임. 다른 부서 예산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도서관 예산은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액 증가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동결, 축소만 언급되고 있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음. 임금도 계속 동결하면 좋은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거고, 모든 것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임.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 그리고 적립금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증가한 것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대부분 산학협력단의 기금에서 끌어온 것임.

**이종진(위원장)**

특정목적기금을 보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60억, 국제문화교육원에서 20억 등 전출을 받았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산단 적립금이 줄어들었다 뜻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그러함. 414억 기금 중 대부분이 목적 기금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금은 없다고 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임. 등록금이나 전입금 등이 주 수입 재원인데, 등록금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

**이종진(위원장)**

모든 것을 줄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총장 신규 사업 계획들에 따라서 기부자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추세에 있고, 관련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음. 도서관 등 각종 시설보수에 투자할 계획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부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추가로 대학원을 지원하는 개념임.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대학원 입학금은 학부와 달리 관련 정책이 아직 없는데, 타교의 경우 입학금 감축 계획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음.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장학금 비율 관련해서 학부와 대학원을 나누었을 때 수도권 대학중 장학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음. 연구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됐는지를 보여줬으면 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교내연구비는 주로 교원들의 신청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매년 변동폭이 큼.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연구비는 미리 배정하고 쓰는 것이 아닌,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신청건수의 증감에 따라 매년 큰폭으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음.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로 보육비 증가라고 했는데,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고려중으로 알고있음.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알고싶음. 외부위원께서 말씀하셨듯 감축되는 부분이 아닌 학교발전을 위해 증가되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약 2억 대학원지원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학과별로는 크지 않을 수 있음. 상세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은 고등교육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자율 책정이 가능함.

**원재환(학생문화처장)**

타 대학은 이미 올렸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많은 대학이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인상된 부분은 외국인 멘토나 한국어 교육등 투입하여 향후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쓰일 예정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대학원 입학금에 대해 현재 국가정책적 입장은 없음. 현재 우리대학도 국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감축하기 어려운 상황임.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장학금 비율이 타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일반대학원 학생들이 TA장학금등으로 받고 있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논문심사료를 폐지하는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전년도까지 3개년간의 일반대학원 1인당 장학금은 타 대학에 비해 절대 금액으로도 높은 편이었음. 올해 금액도 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염영섭(학교법인 상임이사)**

예전엔 정부정책상 연구 프로젝트 제안 등이 많았으나, 최근 트렌드는 교육지향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교육의 질적 수준에 집중해가는 전환점에 있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학교가 최근 연구 실적이 부진한 연구자를 독려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들었음. 학교에서 보다 독려를 해줬으면 함.

**이종진(위원장)**

산학협력단 연구처장이 바뀌면서 연구독려, 활성화의 정책을 잡아가고 있음.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학생들이 이 회의에 참관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말하고자 함. 예결산에 대해서 학부단위의 자료를 보았으면 함. 예결산 자료를 봐야 등록금심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봄.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함. 등록금 의존율을 전국대학으로 봤을 때 약 150개 대학중 44번째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있음. 학생들이 학교운영 부담을 많이 지고 있어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이 있음.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적어서 학생이 부담하는 비중이 크다고 봄.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드리며, 올해 및 내년도 법정부담금액과 교육부에 제출한 법정 재정여건 승인 관련 자료를 봤으면 함. 이공계 학생들이 실험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수 학전공은 실험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화학과 일부 실험은 기자재가 열악하여 실험 진행이 어려움.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에 대해 알려줬으면 함. 학부생 중에서도 자녀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함.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학생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며 후생복지위원회하고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종진(위원장)**

등록금심의위원회 개방에 대해 위원들의 생각을 듣고자 함.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완전한 오픈은 아니더라도 예결산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석할 수 있으면 좋겠음.

**이종진(위원장)**

진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위원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함.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의결권이 없는 인원의 참석은 회의에 있어 도움을 주는 정도 역할일 것이라 봄. 우려되는 부분은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경우 여러 단위에서의 서로 참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우려됨. 회의 간 정회를 한다든지 대안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 봄. 전체 9명중 학생위원이 4명으로 적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보임. 회의간 자료 숙지의 시간을 갖거나 하는 대안을 통해 효율적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종진(위원장)**

회의간 시간 텀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각자 단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학교 구성원들 간 신뢰를 위해서는 업무의 처리 과정이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회의록 등이 빠른 시일에 올라왔으면 함.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위원 확인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음.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참여율은 차치하더라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고 봄.

**이종진(위원장)**

현재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학과별 예결산에 대해 요청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함.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아야하고 알고싶은 자료들은 제공이 되었으면 함.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현재 2018학년도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결산은 4월경에 이루어짐. 회의록도 최대한 인터뷰를 줄이도록 하겠음.

**이종진(위원장)**

법정전입금 설명 부탁함.

**이도행(법인사무처 법무감사팀 계장)**

법인이 설치학교를 가지고 있는, 경영의 의무가 있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법정부담금을 정의하고 있음. 법적으로 사학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세가지로 구성되어있음. 2015년에 약 1억, 2016년에 12억정도, 올해 약 14억, 내년 1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음. 법인의 재원은 금융수익, 기부금수입,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한 전입금 세가지로 구성되었음. 현재 유보 없이 전액 내보내고 있는 상태라 신규사업을 자기자본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갑자기 증액하기는 어려우나, 신규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있고 법인 인건비등에 대해 학교와 마찬가지로 동결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교육부 승인 관련해서, 법인의 운영수익계산서를 기초로 부담여력을 약 6억으로 결정받았음. 거기에 추가 금액을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면 함. 관련 자료는 법인사무처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게끔 하겠음.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등록금의 실험실습비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내역 등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면 함.

**이종진(위원장)**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등록금이 차등책정된 이유는 실험실습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높은 것이 원인임. 법률상 교원 확보율을 계산하는 기준자체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서 높음(인문사회계열 교수 1인당 학생 25명 기준, 자연공학계열 교수 1인당 학생 20명 기준). 그럼에도 자연공학계열 교원확보율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높음. 부담하는 인건비가 크고 연구실과 실험실로 공간을 사용하는 비중도 높음.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학과별 교육비 현황이나 실험실습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것이 요청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등록금이 학부별로 책정되는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학부별로 책정됨.

**염영섭(학교법인 상임이사)**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공학계열 수업을 들을 경우 수업료 면에서 혜택을 본다고 보이는 등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는 것에 따라 수업료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음.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하는 것이 되어 제제를 받을 수 있음. 국가장학금 제2유형 탈락 등 리스크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등록금에 실험실습비항목이 분리되어있지 않다면, 간접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공계의 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임.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실험실습비가 학과에 공유가 되어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종진(위원장)**

기획처장 협의회 등을 가서 논의해보았을 때 많은 학교가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가급적 학생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약으로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 연장하는 것이 있음. 현재 4회차로 나눠서 납부 할 수 있음. 인문사회계열 기준 한달에 9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함. 등록금을 직접 벌어서 내고자 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었으면 함. 그리고 작년 교직원 횡령건이 148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 얘기를 해주었으면 함.

**이종진(위원장)**

148억에 대한 것은 기금목적용 변경하면서 절차를 누락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 착복이나 횡령한건은 아님. 베르크만스 우정원 건설 등에 사용한 건이고 재단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회의 결과 공지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등록금 분납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지금 현재 4회 분납 시행중에도 분납금액 회수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많음. 학교 입장에서는 횡수를 더 나누어 학생들이 혜택 받으면 좋겠지만 일부 학생들 때문에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면이 있음. 제도 정착을 위해 학교와 학생회가 같이 방안을 논의했으면 함.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현재 대학원도 분납이 가능한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대학원은 현재 분납제도가 없음.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작년 결산 중 6억 전출은 무엇인지.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등록금 회계에서 전출가능한 항목이 차입금상환과 감가상각비 상당액 건축기금 밖에 없음. 작년 6억을 리찌과학관 상환에 사용한 것임.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근자가 기숙사가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이도행(법인사무처 법무감사팀 계장)**

교비회계나 등록금이 아니라 별도 유한회사 회계로 분리되어있음.

**김남진(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본부차원에서는 각 학과에서 실험실 등에 구입한 기계장치나 실험실습비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고있는지 까지 알 수가 없음. 각 학과행정팀에서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학과별로 계산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마지막으로 대학원 등록금 1%인상에는 논문심사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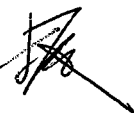


### 3.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2018년 1월 15일 (월) 오전10:30에 진행하기로 함.

2018. 1. 15


위의 사실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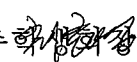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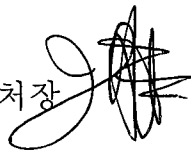
(학생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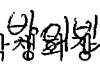
(외부전문가)


염영섭  
법인 상임이사 

최효영  
대학원총학생회장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김평강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